

본성 회복형 인물 서사의 교육적 의의 -『三國遺事』 「廣德 嚴莊」條를 중심으로-

정 보 배*

목차

- | | |
|------------------------|-----------------------|
| I. 머리말 | IV. 회복형 인물 설정의 의의와 방안 |
| II. 불교와 유학의 인간관 | V. 맺음말 |
| III. 廣德 嚴莊조의 인물 형상화 양상 | |

論文 抄錄

이 논문은 『三國遺事』 「廣德 嚴莊」條의 문화적 맥락 읽기를 통하여, 한국 고전서사 속 인물의 한 유형으로서 본성 회복형 인물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한국 고전서사 문학 속 인물은 勸善懲惡의 주제로 인해 善人和 惡人으로 유형화되어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 고전문학의 주제 형상화의 주된 源流가 되는 儒佛사상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긍정하며, 노력에 따라 회복이 가능한 것이라 정의한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고전서사 문학의 문화적 맥락 읽기를 시도할 때, 기존에 惡人으로 분류되어 온 인물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아울러 주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도 가능해진다.

「廣德 嚴莊」條는 엄장 중심의 서사로서, 욕망에 사로잡힌 평범한 인물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짧은 이야기 속에 담아내어 본성 회복형 인물 중심의 서사를 밀도 있게 보여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작품이 가진 감동과 가

* 부산남고등학교 교사

■ 논문투고일: 2020.04.30 / 심사개시일: 2020.05.16 / 게재확정일: 2020.06.19

치를 살리기 위해 문화적 맥락 읽기를 시도하여 그 의미를 도출하였다. 작품 속 인물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확대한다면, 한국 고전문학 전반에 있어 기존 해석들과 결을 달리하면서도 여러 의미 있는 해석이 도출될 것이라 기대한다. 본고는 이 작품의 분석을 통해 현대에 필요한 여러 문학 교육적, 인성 교육적 의의를 정리하였으며, 나아가 본성 회복형 인물 서사가 오늘날의 독자에게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를 교육적으로 실행할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본성 회복형 인물, 「廣德 嚴莊」, 『三國遺事』, 儒佛사상, 문화적 맥락 읽기

I. 머리말

1. 문제제기

한국 고전서사 문학 속에서 勸善懲惡의 주제의식을 찾기란 매우 쉽다. 오랜 설화로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장터에서 많이 팔리던 「춘향전」이나 「심청전」 같은 대중적 고전소설에 이르기까지, ‘착한 주인공이 온갖 시련을 견디고 마침내 복을 받는다.’는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는 작품은 없다. 실제로 고소설에 남겨진 독자의 후기나 소감 및 잡기 등에서도, 이러한 勸善懲惡의 주제의식은 당대 독자들이 작품의 효용성과 작품 전체의 미감을 평가하는 주요 척도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¹⁾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고소설의 주인공은 응당 善人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善人은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된 원동력으로 인식되었다. 반면 주인공에게 시련을 주는 惡人은 결국 패하여 벌을 받거나, 감화되

1) 류탁일이 집성한 127개의 ‘고소설 작자 독자의 소감 잡기’ 중 45개의 글에서 忠·孝·烈에 장한 주인공의 행위가 훗날의 복이 되었음을 말하거나, 독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效則해야 함을 드러낸다. 류탁일, 『한국 고소설 비평자료 집성』(아세아문화사, 1994), pp.213-291.

는 등의 변화로서 善人을 더욱 부각하는 역할을 맡았다. 惡人은 주로 주인공의 선한 품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그 위치를 인정받아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善人과 惡人의 사이에 존재하며 작품의 주제의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본성 회복형 인물’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된 적이 없다. 이는 소위 善人과 惡人의 중간적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물형의 존재에 대한 단서는 우리 고전 서사 전반에 영향을 준 유학과 불교의 인간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학과 불교는 본래적으로 악한 인격체의 존재를 설하지 않는다. 공히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에 대해 생래적이고 감각적인 욕구로 인해서 본성이 일시적으로 가려진 것 때문이라 설한다. 고전문학이 이 두 사상과 밀접한 영향관계임은 지금껏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고전문학 해석에 있어 ‘善人’, ‘惡人’, ‘勸善懲惡’으로 귀결되는 주제 등의 핵심어를 추출해내는 것은, 아직까지 고전 문학의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의 이러한 인식은 우리 고전문학이 평면적이며 일방적인 의미만을 표출한다고 볼 우려가 있다.

물론 고전서사에 뚜렷한 면모로 등장하는 善人과 惡人 또한 유학과 불교를 사상적 배경으로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선과 악 사이에 등장하는 ‘과정’적 측면, 즉 ‘인간의 본성 회복 가능성’, 혹은 ‘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가르침 또한 분명함에도 그 내용은 간과된 채 고전서사를 읽고 해석하는 것은 분명 완전한 해석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본성 회복형 인물’의 설정을 통해 우리 고전 문학을 되돌아보면, 기존 惡人이라 알려진 여러 인물을 본성 회복형 인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²⁾ 그뿐 아니라, 주인공 중에서도 초반의 시련과 여러 시행착오를 거

2) 「창선감의록」의 화춘, 완판 「퇴별가」의 토끼, 「홍부전」의 놀부 등이 대표적이다. 화춘의 경우, 배다른 동생 화진을 시기하여 모함하고 궁지에 빠뜨리지만, 한결같이 형인 자신과 화진을 구박하는 심씨를 어머니로 공경하는 모습

쳐 성장과 깨달음을 통해 立身揚名을 이루고 천하의 안정에 기여하게 된 인물이 많다.³⁾ 이러한 시각에서 주인공들의 일부 또한 본성 회복형 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성 회복형 인물’에 주목하게 되면, 기존 고소설 속 인물들이 현대의 독자들에게 한층 입체적으로 다가갈 것이며, 독자들의 공감을 얻는 매력적 인물로 거듭날 것이다. 작품 전체의 주제의식 또한 기존에 비해 다양하게 펼쳐질 것이며, 이에 따라 시공을 초월하여 공감과 깨달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이 될 것이다.

본고는 『三國遺事』의 「廣德 嚴莊」條가 이러한 본성 회복형 인물을 중심으로 한 서사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 작품의 해석을 통해 본성 회복형 인물의 특성을 정리하고, 작품 전체의 의미와 그 현대적 의의를 새롭게 밝혀 보고자 한다. 「廣德 嚴莊」條는 『三國遺事』의 感通篇에 수록된 이야기이다. 광덕과 엄장은 親友이자 깨달음이라는 목표로 함께 나아가는 道伴이다. 어느 날 광덕이 먼저 서방 정토로 가게 되고, 엄장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광덕과 함께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면서 또한 서방으로 가고자 노력하는 엄장은 광덕이 남긴 빈자리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고, 진정한 깨달음의 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준다.

「廣德 嚴莊」條는 엄장의 발원, 노력, 깨달음, 성취의 과정이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찍이 바른 수행 방법으로 깨달음에 이른 성인인 광덕보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깨달음에 이른 엄장의 성장 과정이 중심인 것이다. 이른바 ‘본성 회복형 인물’이 중심이 되어 서사를 이끌고 작품 전체의 주제의식을 구현하고 있다. 『三國遺事』 感通篇의 의도 또한 그렇듯이, 부족한 엄장과 같은 인물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어 읽는 이들을 感化한다. 그러나 기존 고전서사 속 인

에 마침내 감화되어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본성의 회복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 3) 영웅소설 중에 특히 많은데, ‘조웅, 유충렬, 소대성’ 등은 주인공임에도 작품 초, 중반부에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완판의 춘향과 심청은 본성 발현의 범위가 부부나 부녀 등 개인적 관계에 국한되었다가, 작품 중반 이후 공동체의 경사나 이익 등으로 확대되는 면모를 보인다.

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엄장의 서사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성취하기보다, 개인적인 욕망을 드러내며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본성 회복형 인물’의 관점으로 이 작품을 살핀다면, 感通篇에 실린 「廣德 嚴莊」條의 참 의미가 생생하게 살아날 것이라 본다.

‘문화적 맥락 읽기’란 고전문학 해석 과정에서 작품을 탄생시킨 문화 맥락 요소와 작품 구성 요소들의 유기적인 결합을 살펴보는 방법이다. 문학 작품을 쓴 작가의 사상과 감정은 작가가 속한 그 사회의 사상과 문화에 영향을 받으므로, 작품 역시 그 사회의 정신적 구조의 산물이라고 보는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⁴⁾ 본고는 고전작품의 창작 당시 광범위한 제도문화였던 유학과 불교에 입각한 작품 해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⁵⁾

고전문학을 접하는 독자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추론할 수 있

-
- 4) 장순희, 「문화적 맥락 읽기를 통한 고전소설 교육방안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13, p.26. ‘문화적 맥락 읽기’ 개념은 김병권의 연구를 토대로 한다. 대표적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병권, 『방각소설 장풍운전과 문화관습』(세종출판사, 2001); 김병권, 『고전문학 속의 문화 읽기』(부산대학교출판부, 2009).
- 5) 고전이 창작될 당시의 문화와 관습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 해석을 시도한 여러 연구를 통해, 정교하고 다양한 해석이 도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고전 작품이 우리 전통 문화를 실상에 가깝게 전달하는 증거물이라는 점과, 우리 전통 문화와 관습이 자생적 작품 해석 이론이 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화적 맥락 읽기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당대 문화와 관습의 전문적 내용을 숙지해야 하고, 다시 이를 바탕으로 문학 해석의 방법으로서 적합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 혹은 변용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당대의 정치·사회·문화에 광범위한 영향을 준 유학과 불교의 공통점을 추출하여 간략화 하는 과정을 통해, 이해가 쉽고 문학 작품의 해석에도 용이한 방법을 마련하고자 했다. 유학과 불교의 사상적 성격과 인간관은 고교 학습자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일반선택 과목인 ‘윤리와 사상’을 통해 배우며, 불교 경전인 ‘금강경’은 진로선택 과목인 ‘고전과 윤리’ 과목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차후 교과 간 융합 혹은 주제 통합수업을 통한 교육적 적용 가능성도 높다.

을 때 응당 작품의 정확한 해석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문화적 맥락 읽기의 일환으로, 『三國遺事』의 사상적 배경인 불교와 유학의 인간관을 토대로 하여 「廣德 嚴莊」條에 표현된 본성 회복형 인물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후 그 특성과 작품 전체의 주제의식을 도출하며, 그 현대적 의의를 정리하고 교육적 실행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三國遺事』의 「廣德 嚴莊」條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크게 서사 구조의 특성 관련 연구, 「廣德 嚴莊」條에 수록된 <願往生歌>의 화자 관련 연구, 하층민의 구도방식이나 당대 불교 대중화 관련 연구, 불교 사상 관련 연구, 교육적 의의와 관련된 연구 등으로 일별해볼 수 있다. 본고는 작품 속 인물 형상화 양상을 유학과 불교의 인간관을 토대로 살피고자 하므로, 서사 구조의 특성 관련 연구와 불교 사상 관련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서사 구조와 관련된 주요 연구로는, 이 이야기를 도반의 수행과정의 현실적 모습 형상화로 본 연구,⁶⁾ 대승적 수행방식과 소승적 수행방식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한 연구,⁷⁾ 包山二聖 설화에서의 이야기 구조 확장 결과라 본 연구,⁸⁾ 작품을 세 단계로 나누어 二人成佛譚의 발원과 성취구조의 두 유형을 보여준다고 한 연구,⁹⁾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반복구조로서聖과 俗의 전복과 고대인의 염원을 보여준다고 한 연구,¹⁰⁾ 한국 불교설

6) 이현주, 「『三國遺事』 고승수행담의 양상과 의미」, 『국학연구론총』 제21집(택민국학연구원, 2018), pp.165-190.

7) 김문태, 「『三國遺事』 소재 대비적 인물의 득도(得道)양상」, 『고전문학연구』 제41권(한국고전문학회, 2012), pp.293-320.

8) 박인희, 「『三國遺事』 도반설화의 확장과 변모」, 『어문연구』 제37권 제2호(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pp.125-140.

9) 박용식, 「二人成佛譚의 발원과 성취구조」, 『국학연구론총』 제4집(택민국학연구원, 2009), pp.1-20.

10) 정현옥, 「『三國遺事』 소재 「廣德 嚴莊」條의 기호학적 분석」, 『배달말』 33

화의 네 유형 중 하나인 ‘정토왕생과 현신성불’ 유형으로 본 연구¹¹⁾가 있다. 이들 간에는 전반적으로 작품 내용 해석에 있어 큰 이견이 없고, 부족한 인물인 엄장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 작품의 의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광덕과 엄장을 대비적인 시선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엄장의 성취가 가지는 의미를 ‘누구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해석하는 정도에 그친다.

불교사상 관련 주요 연구로는, 광덕은 般若三昧·觀佛三昧·持戒念佛을 통해, 엄장은 懺悔·悔過·止觀의 수행법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본 연구,¹²⁾ 구운몽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화엄불교의 二諦合明中道說을 표현했다고 본 연구,¹³⁾ 선악의 대비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조선시대 유교의 영향을 받은 고전소설과의 차이에 주목한 연구,¹⁴⁾ 現身往生을 보여주는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설화와 비교하여, 광덕·엄장 설화가 죽은 뒤의 왕생, 즉 사후 왕생을 말하는 이전의 왕생 관념을 보여준다고 본 연구¹⁵⁾가 있다. 이들 연구는 불교 사상의 여러 측면을 통해 작품의 깊이 있는 해석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 사상의 기저에 있는 인간관으로서 접근한 해석은 없으며, 특히 이 설화를 유학 사상과의 관련성으로 논한 연구는 없다.

『三國遺事』를 저술한 일연은 승려이며, 『三國遺事』의 많은 이야기가 불교 관련 유적이거나 영험과 관련된 설화이기에 이러한 연구 경향은 충

(배달말학회, 2003), pp.319-338.

- 11) 김기중, 「한국불교 문헌설화의 양상과 성격」, 『동악어문학』 67집(동악어문학회, 2016), pp.275-309.
- 12) 황병익, 「『三國遺事』 「廣德 嚴莊」條와 <願往生歌>의 의미 재고」, 『한국시가연구』 제43집(한국시가학회, 2017), pp.183-218.
- 13) 설중환, 「광덕 엄장설화 연구 : 「구운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9집(우리어문학회, 1995), pp.191-226.
- 14) 박노준, 「신라가요 산문기록에 나타난 선·악 두 세계」, 『민족문화연구』 8권(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4), pp.163-197.
- 15) 박서연, 「신라 현신성불설화에 보이는 의상 화엄사상의 영향」, 『한국불교학』 78(한국불교학회, 2016), pp.537-561.

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三國遺事』가 지어진 시기가 儒·佛간 교섭이 활발했던 고려 후기이며, 일연이 당대 불교는 물론 유학 등 제자백가에 통달한 학승으로 평가 받았고,¹⁶⁾ 『三國遺事』가 지어질 당시 유학자와 승려 간 교류가 활발했다는 역사적 맥락 정보를 고려할 때,¹⁷⁾ 차후 『三國遺事』의 여러 이야기들을 유학 사상으로 접근해 볼 여지 또한 있다고 본다.

실상 「廣德 嚴莊」條는 여러 측면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음에도 관련된 학술적 연구는 많지 않다.¹⁸⁾ 따라서 이러한 인물 형상화의 문학 교육적, 인성 교육적 의의를 밝히고, 본성 회복형 인물이 현대인에게 줄 수 있는 여러 의의를 정리해 볼 것이다.

-
- 16) 일연은 비록 불도를 닦기 위해 일평생 전념한 승려였지만 유가에도 능통하였다는 평을 받은 당대의 학승(學僧)이었다. 고려의 유학자 민지는 그의 묘비에 “유가의 책을 섭렵하고 겸하여 백가를 꿰뚫어, 처방에 따라 사물을 이롭게 하고 신묘로운 쓰임이 중횡하였다”고 썼다(민지 찬, 고운기 옮김, 「고려국 화산 조계종 인각사 가지산하 보각국존비 병서」, 『일연을 묻는다』(현암사, 2006), p.356).
- 17) 에드워드 슈츠는 “최씨 정권이 수선사 등의 사찰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 사찰을 학습과 연구에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었다. 학자와 승려, 유교와 불교의 이러한 결합은 조선 왕조가 건국되는 동안 발전한 신유학을 예비하는 사상적 혼합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Edward J. Shultz, 김범 옮김, 『무신과 문신』(글항아리, 2016), pp.221-222).
- 18) 「廣德 嚴莊」條를 努盼夫得 怛怛朴朴 설화와 함께 二人成佛譚 유형이라 논하면서, 욕망과 성불, 우월성에 대한 인간 본성 탐구 등의 교육적 의의를 주장한 연구(주재우, 「인간탐구로서의 고전문학 교육연구-二人成佛譚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23호(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9), pp.131-157.)가 있다. 이 연구 외에는 『三國遺事』 여러 편의 이야기를 묶어서 교육 방안이나 의의를 논한 연구가 대다수이다.

II. 불교와 유학의 인간관

1. 인간의 본성

모든 종교와 사상은 기본적으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혹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어떠한 곳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한다. 이는 장차 앞으로 인간 존재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인간 사회에 본격적인 사상이나 종교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존재해 온 오랜 질문과 답이기도 하다.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작품은 『三國遺事』에 수록되어 있다. 『三國遺事』는 고려 후기 儒佛 교섭의 분위기나 일연의 사상적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의 영향을 일정 부분 받았을 것으로도 보지만, 직접적으로 불교와 친연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불교에서 논하는 인간 본성부터 고찰해 보고자 한다.

불교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깨달음이며, 깨달음의 대상은 인간 개개인에 내재한 ‘佛性’, 즉 중생이 깨달은 자인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석가모니는 모든 인간에게 깨달은 자,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佛性이 내재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계급사회였던 당시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인간 존엄과 평등사상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본다. 비록 동아시아에 널리 전파되며 당대의 특정 왕조나 국가 권력과 결탁되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生死苦海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광범위한 민중들의 지지를 받은 사상이자 종교로 발전하였다.

불교에서는 인간이라면 모두 불성이 내재해 있다고 본다. 화엄경에서는 “중생과 마음과 부처, 이 셋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고 설하고 있다. 또한, “마음이 더러운 까닭에 중생이 더럽고 마음이 깨끗한 까닭에 중생이 깨끗하다. 마치 화가가 하얀 바탕에 여러 가지 채색으로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듯이, 마음도 오온에 대한 무지로 말

미암아 생사에 묶이고, 오온에 대한 여실지로 해탈을 얻는다(잡아함 권 10).¹⁹⁾고 하였다. 이렇듯 깨끗한 마음, 즉 불성을 타고났음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과 번뇌를 해마다 인생을 마무리한다. 따라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행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락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다. 단순히 부유하다거나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고통을 피할 수는 없기에, 내재한 불성을 깨달아 인생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스스로에게서 행복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 중 가장 주된 것은 無相을 깨닫는 것이라고 불교는 가르친다. 모든 것은 無相, 즉 ‘시비 분별할 어떤 모습도 없는²⁰⁾ 상태로, 고정된 것이 아님을 끊임없이 노력하여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깨달음을 위해 그것이 머무르지 않음, 즉 ‘온갖 모습이 사라져 머물러 집착할 것이 없는²¹⁾ 상태인 無住를 실천해야 한다. 지금 가진 부나 명예 등의 만족에 머무르지 말며, 또한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 이는 결국 인간 주체의 인식의 변화를 통한 깨달음을 단초로 한다. 즉, 불교는 無相과 無住를 깨달아 生死苦海에서 벗어난 자아자재한 인간이 되도록 촉구하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²²⁾

이러한 불교가 주장하는 인간 본성은 자비, 지혜, 청정이다. 그러나 인간은 또한 생명체이기에 생명 유지에 필요한 감각기관을 타고났는데, 이

19) 고익진, 『불교의 체계적 이해』, (광복, 2006), p.96.

20) 원순, 「육조서문 『金剛般若波羅蜜經』의 대의」, 『육조스님 금강경』, 범공양, 2014, p.19.

21) 원순, 위의 책, p.19.

22) 『금강경』의 초반부에, 석가모니의 제자 수보리가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낸 선남자선녀인이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게 하며, 항복시켜야 합니까?’라 질문한다(『金剛般若波羅蜜經』 第二 「善現起請分」, “時 長老 須菩提 … 希有 世尊 如來 善護念諸菩薩 善付囑諸菩薩 世尊 善男子善女人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應云何住 云何降伏其心.”). 금강경 전체는 이 질문에 대한 석가모니의 답이자 가르침으로 구성되며, 無相과 無住가 끊임없이 강조된다. 즉, 불교에서는 마음의 문제를 오래 고민해 왔으며, 깨달음으로 가는 길 또한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며 항복시켜야 하는가?’에 달린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러한 감각인 五蘊으로 인해 이러한 佛性의 유지와 보존이 어렵다고 설명한다.²³⁾ 따라서 이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생기는 욕망과 집착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두가 불성을 회복하여 부처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불교에서의 인간 본성에 대한 입장이다.

지금까지 불교에서 주장하는 인간 본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의해 보았다. 『三國遺事』와 불교의 관련성은 그 가능성이 다분하나, 유학과의 관련성은 불교에 비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연의 생애나 시대를 통해 유추해 볼 때 『三國遺事』와 유학의 관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이 역시 불교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연구자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²⁴⁾ 따라서 인간 본성에 대한 유학의 입장 또한

23) 인간 존재를 이루고 있는 물질적 형체를 ‘色蘊’이라 하며, ‘受想行識’이라는 정신적 사운을 추가한 五蘊說을 제시한다. ‘色受想行識’은 개체가 느끼고, 생각하고, 작용하고, 식별하는 정신적 기능을 표현한다(고익진, 위의 책, pp.26-27).

24) 본고와 같이, 일연이 불교 뿐 아니라 제자백가의 학문에 통달하는 등 史書를 찬술할 학문적 역량이 풍부했고 실제 史書 및 유가의 서적 등 다양한 전거를 바탕으로 찬술한 점을 들어 『三國遺事』와 유학의 관련성을 논한 연구가 있다(채상식, 「『三國遺事』의 찬술기반」, 『한국사학사학보』 제35호(한국사학사학회, 2017), pp.31-54). 이와 같은 맥락 하에 유·불의 공통적 인간관을 추출하여, 『三國遺事』의 단군신화를 재해석한 연구 또한 시도되었다(줄고, 「유불사상을 통한 「단군신화」 인물형의 해석과 문학교육적 의의 연구」, 『국어문학』 제71집(국어문학회, 2019), pp.259-300). 정효운은 仁과 義, 忠 등 유학과 밀접한 개념을 문맥에서 빈번하게 추출할 수 있으며, 귀신과 혼령에 대한 견해 등이 유학과 상통하는 점을 들어 『三國遺事』와 유학의 밀접성을 논했으며, 이는 불교가 중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오면서 유학과 도교를 바탕으로 한 대승불교적 성격이 심화된 것을 그 까닭으로 보았다(정효운, 「『三國遺事』에 나타난 한국인의 사생관」, 『동아시아고대학』 제39집(동아시아고대학회, 2015), pp.33-64). 안외순은 『三國遺事』와 『三國史記』가 공히 유학의 정치사상을 담고 있음을 규명하여 『三國遺事』와 유학의 상관성을 논했으며(안외순, 「한국정치사상의 원형탐구-『三國史記』와 『三國遺事』를 중심으로-」, 『온지논총』 제41집(온지학회, 2014), pp.223-256). 이상성은 한국고유사상이 유학과 습합하는 과정이 『三國遺事』에 잘 드러났음을 들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유학에서는 孔子와 孟子가 인간 본성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내용적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孟子』의 ‘四端’과 『大學』의 ‘明明德’이 그것이다. 특히 孟子는 모든 사람이 남에게 차마 어찌지 못하는 마음인 ‘不忍人之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惻隱之心, 羞惡之心, 辭讓之心, 是非之心이라 언급했다. 이 네 가지는 사람이 四肢를 가진 것과 같이 누구나 가진 인간의 본성이라 주장하는 것이다.²⁵⁾ 『大學』에서는 ‘明明德’이라 하여, 인간의 타고난 明德인 본성을 밝히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²⁶⁾ 이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善行이 시작된다는 말이다. 마음 안에 性, 곧 인간으로서 부여 받은 맑은 본성이 있고, 이 性이 마음에서 표출되는 것이 善行이기 때문이다. 이는 불교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본래 타고난 본성을 긍정하는 것이다.

孟子의 四端은 이후 宋의 학자들에 의해 그 구체적 양상이 설명되고 있다. 우선 周敦頤는 「太極圖」를 통해 우주 탄생과 발전의 원동력을 太極이라 설명한다. 예부터 고대의 동양인들은 太極으로부터 우주가 생겨났다고 보았다. 이에서 두 개의 대립적 힘인 陰과 陽이 나오고, 이들이 운동함으로써 여기에서 다시 다섯 가지 물질적 요소인 五行이 생기고, 이 陰陽과 五行이 서로 결합하여 인간과 만물이 생겨난다고 설명하였다.

어 본고와의 주장과 그 맥을 같이 했다(이상성, 「한국고유사상과 유교의 습합-『三國遺事』와 『三國史記』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제64집(한국철학사연구회, 2020), pp.9-48). 이상의 논의들은 모두 『三國遺事』와 불교의 친연성을 언급하면서도, 유학의 영향 또는 관련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본고의 논의와 통한다.

- 25) 『孟子』, 「公孫丑」上 6, “人皆有不忍人之心, 先王有不忍人之心, 斯有不忍人之政矣, 以不忍人之心, 行不忍人之政, 治天下, 可運之掌上. … 由是觀之,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人也.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知之端也. 人之有是四端也猶其有四體也.”
- 26) 『大學』, 「傳文」1. “康誥曰克明德, 太甲曰顧諟天之明命, 帝典曰克明峻德, 皆自明也.”

그 중에서도 사람은 五行인 水·火·木·金·土 가운데 가장 뛰어난 氣를 받아 형성되었기에 만물 중에서 빼어난 존재인 것이며, 따라서 五行에 대응되는 인간 본성인 仁·義·禮·智·信을 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修養의 유무가 君子와 小人을 결정한다.²⁷⁾

동양 사상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유학과 불교는 공통적으로 인간 존재의 타고난 性を 긍정적으로 보며, 감각적 욕구에 의해 가려져 악행을 저지를 수 있으나, 이는 노력에 따라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²⁸⁾ 이러한 인간 본성에 대한 입장이 유사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 두 사상이 정치, 사회, 문화 등에 미친 영향은 매우 심대하며, 이에 대한 이해는 동양에서 꽃피워진 많은 사상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러한 토양 위에 태어난 한국 서사 또한 이러한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2. 본성 회복의 가능성과 방법

인간 본성이 이와 같이 우주의 이치를 타고났음에도 여러 악행과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이러한 본성이 생득적으로 생존을 위한 감각적 욕구를 함께 타고나기 때문이다. 인간은 신을 닮은 존재, 우주의 영명한 기운을 가장 많이 부여받은 뛰어난 존재일 수 있으나 생명체인 이상 육체를 유지하고 영양분을 공급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으므로 감각적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부여받은 우주의 이치가 가려지고, 감각적 욕구에 계속 기울게 되면 결국 부여받은 본

27) 李滉, 『聖學十圖』, 「太極圖說」, “惟人也得其秀而最靈. 形既生矣, 神發知矣, 五性感通, 而善惡分, 萬事出矣. 聖人定之以中正仁義而主靜, 立人極焉. 故聖人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四時合其序, 鬼神合其吉凶. 君子修之, 吉, 小人悖之, 凶.”

28) 정보배, 「관소리계 소설의 군자·보살형 인물을 통한 조선후기 소설 독자의 가치관 고찰」,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8권 제1호(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9), p.153.

성대로 살지 못하고 갈등하게 되며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끊임없이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둘러싼 현상이 늘 변하기에 모든 것은空한 것이라 가르친다. 즉, 일체는 無相이 본질이며 이를 깨달아 마음을 머무름 없는 無住에 이르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감각적 욕구로 인해 실체가 있고 고정된 무엇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이를 좇게 된다. 이러한 망념으로 죄를 반복한다. 따라서 이러한 망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체가空한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네 가지 집착의 종류로 四相, 즉 ‘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을 제시하며 특히 이것을 끊어야 이상적 인간상인 菩薩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와 같이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고, 가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지만 실은 제도를 받은 중생은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아,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에 대한 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²⁹⁾

불교에서 이러한 이상적 인간상인 菩薩에 이르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六波羅蜜을 제시하고 있다. ‘普施, 持戒, 忍辱, 精進, 禪定, 般若’가 그것이다. 이는 수행자로서 菩薩에 이르는 길과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⁰⁾

29) 『金剛般若波羅密經』, 第三「大乘正宗分」, “如是滅度 無量無數無邊衆生 實無衆生 得滅度者. 何以故 須菩提 若菩薩 有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 卽非菩薩.”

30) 보시바라밀은 자기 소유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것이다. 지계바라밀은 계율을 잘 지니며 행하는 것이다. 인욕바라밀은 괴로움을 받아들여 참는 것이다. 정진바라밀은 깨달음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여 방일하지 않는 것이다. 선정바라밀은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사색하는 것을 뜻한다. 반야바라밀은 지혜를 뜻하며 다섯 바라밀의 주도자이자 성립기반이다. 육바라밀은 이렇게 반야바라밀을 중심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아낌없

유학에서는 『論語』의 ‘克己復禮’를 시작으로, 자신을 극복하여 예를 회복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大學』에서는 ‘明明德’을 위한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몸을 닦는 방법은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은, 마음에 노여움이 있으면 마음이 바를 수 없고, 두려움이 있으면 마음이 바를 수 없고,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이 바를 수 없고, 걱정이 있으면 마음이 바를 수 없다는 것이다. 마음이 다른 데로 쏠려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 수 없는 법이다. 그런 상태로는 언행이 제대로 될 리 없으니, 그래서 ‘몸을 닦는 방법은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³¹⁾

마음을 바르게 하라는 것은 결국 인식의 문제와 상통하며, 노여움 등과 같은 순간적 감정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다. 이 또한 無相을 깨닫고 無住를 실천하라는 불교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유학 또한 오래 전부터 마음의 수양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본성 회복과 선을 행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됨을 주장해 왔다. 退溪 또한 인간의 성을 ‘本然之性’과 ‘氣質之性’의 두 가지로 보면서, 이것이 각각 氣인 四端과 七情으로 표출된다고 파악했다. 本然之性의 실현인 四端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거나, 뒤에 일어난 氣가 理를 침범하면 악으로 흐르고, 氣質之性의 실현에 해당하는 七情은 이치에 맞게 실현되지 않거나, 조절에 실패하여 本然之性을 침해하면 악으로 흐른다고 했다.³²⁾ 기질지성의 발현인 칠정은

는 시여, 자율적인 준법생활, 끝없는 인내, 굶힐 줄 모르는 정진, 한없이 심오한 사색이 가능하다고 본다(고익진, 위의 책, pp.80-82).

- 31) 『大學』, 「傳文」 7, “所謂修身, 在正其心者, 心有所忿懣, 則不得其正, 有所恐懼, 則不得其正, 有所好樂, 則不得其正, 有所憂患, 則不得其正. 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 此謂脩身, 在正其心.”
- 32) 李滉, 『聖學十圖』, 「心統性情圖」, “故氣發而爲情, 亦以理氣之相須或相害處言. 如四端之情, 理發而氣隨之, 自純善無惡, 必理發未遂, 而掩於氣, 然後流爲不善. 七者之情, 氣發而理乘之, 亦無有不善, 若氣發不中, 而滅其理, 則放而爲

喜·怒·哀·懼·愛·惡·慾이다. 氣質之性을 가진 인간이 타락하지 않으려면 本然之性을 보존하여 발현하거나,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결국 잘못된 길로 들어선 인간 또한 적절한 기회만 있으면 본성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유학과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인간 본성이 회복 가능하다고 보며 그 회복에 대한 구체적 노력 방향과 중요성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본성 회복의 방법은 스스로의 감각적 욕구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야 스스로의 망념, 즉 본성을 가리는 잘못된 관념과 인식을 바로잡을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Ⅲ. 「廣德 嚴莊」條의 인물 형상화 양상

1. 善한 마음의 發芽

「廣德 嚴莊」條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廣德 嚴莊

文武王代, 有沙門名廣德·嚴莊二人友善. 日夕約曰, 先歸安養者, 須告之. 德隱居芬皇西里(或云, 皇龍寺有西去房, 未知孰是), 蒲鞋爲業, 挾妻子而居, 莊庵栖南岳, 大種力耕. 一日, 日影拖紅, 松陰靜暮, 窓外有聲, 報云, 某已四往矣, 惟君好住, 速從我來. 莊排闥而出顧之, 雲外有天樂聲, 光明屬地. 明日歸訪其居, 德果亡矣. 於是, 乃與其婦收骸, 同營蒿里. 既事, 乃謂婦曰, 夫子逝矣, 偕處何如. 婦曰, 可.³³⁾

惡也.”

- 33) 한글 해석은 다음과 같다(이민수 역, 『三國遺事』(을유문화사, 2013), p.518).
문무왕 때에 승려 광덕과 엄장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 사이가 좋아 밤낮으로 이렇게 약속하였다. “먼저 안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서로 알리도록 하자.” 광덕은 분황 서리에 숨어 살면서 신발 만드는 일을 하며 처자식을 데리고 살았고 엄장은 남악 암자를 짓고 살면서 나무를 베어

광덕과 엄장은 깨달음을 위해 노력하는 도반으로서 서로 먼저 成佛하여 안양(安養), 즉 서방으로 가는 이에게 알려 주고자 하는 약속을 한다.³⁴⁾ 이는 깨달음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결심이다. 이는 또한 유학에서 明德을 밝히고자 하는 결심이며, 이치를 궁구하여 앎을 극진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알맞지 않으면 성취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광덕과 엄장 모두 노력했음에도, 웬일인지 광덕이 먼저 서방으로 가게 된다. 광덕은 약속대로 엄장에게 이를 알리고, 이튿날 엄장은 광덕의 집에서 광덕의 죽음을 확인한다.³⁵⁾ 엄장은 광덕 처와 함께 그를 장사지낸 후, 광덕 처에게 함께 지내자고 제안한다.³⁶⁾

이와 같이 엄장은 광덕과 함께 깨달음을 위한 精進을 결심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 사람이다. 또한 親友이자 道伴인 광덕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장례를 치러 주고 그의 처를 거두고자 했다. 물론 광덕 처에게 함께 지내자고 한 것이 이후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이 장면을 해석한다면 엄장이 私慾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함께 지내자는 제안만으로 애초에 엄장이 그러한 인물이었다고 판단할 수만은 없다. 광덕이 처와 함께 살고도 서방 정도로 가는 목표를 달성했기에 이를 좇고자 한 것이며,³⁷⁾ 이후의 상황은 세 사람의 부부관계에 대한 인

불태워 화전을 만들어 농사를 지었다. 어느 날 해 그림자가 붉은 빛을 띠고 소나무 그늘이 고요히 저물었는데, 창밖에서 소리가 났다. “나는 이미 서쪽으로 가니 그대는 잘 살다가 속히 나를 따라오라.” 엄장이 문을 밀치고 나가 보니 구름 밖에 하늘의 음악 소리가 들리고 밝은 빛이 땅에 드리웠다. 이튿날 광덕이 사는 곳을 찾아갔더니 광덕은 과연 죽어 있었다. 이에 그의 아내와 함께 유해를 거두어 장사를 지내고 부인에게 말했다. “남편이 죽었으니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떻겠소?” 광덕의 아내도 허락하고 그 집에 머물렀다.

34) “日夕約曰，先歸安養者，須告之”

35) “一日，… 報云，某已四往矣，惟君好住，速從我來…明日歸訪其居，德果亡矣.”

36) “於是，乃與其婦收骸，同營蒿里。既事，乃謂婦曰，夫子逝矣，偕處何如。”

37) 김문태 또한 이 부분에 대해 “단순한 욕정이 아니라 광덕의 자유롭게 열린 수행방법 내지 수행태도를 따르고자 함”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엄장을 소송

식의 차이, 더 나아가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광덕 입장 설화 초반에 나타난 입장의 서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입장은 결코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지 않는다. 불교의 관점에서 입장은 친구 관계였던 광덕에 대한 자비의 마음을 베풀었으며, 이 마음을 그 가솔인 처에게 확장시킨 것이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報施婆羅蜜의 실천이다. 또 광덕과 함께 깨달음에 이르고자 노력해온 점을 통해 精進波羅蜜을 성실히 실천하고자 한 모습을 보인다.

유학의 관점에서 불교의 자비와 통하는 것은 仁을 발현한 惻隱之心이다. 입장은 광덕의 죽음 이후 惻隱之心을 발휘하여 처를 거두고자 하였고 禮를 다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치러주었다. 이러한 입장의 모습은 타고난 본성의 실마리를 알 수 있게 하며, 장차 입장 또한 노력하면 광덕과 같이 깨달음에 이를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단, 광덕과 입장이 함께 노력했음에도 두 사람의 성취 속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입장과 광덕의 수행 방식의 차이가 이후 이야기 전개에서 부각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2. 깨달음을 향한 精進과 成就

입장은 광덕의 장례를 치른 후 처에게 함께 지내자고 제안하고, 광덕 처는 이 제안에 응한다. 이로부터 독자들의 의문이 시작된다. 광덕과 입장은 분명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수행자이자 승려로 소개되었는데, 어찌하여 부부 사이가 아닌 이성과 같이 지내고자 하는가 의문이 드는 것이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광덕의 장례를 치른 후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런 장면의 등장은 여러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³⁸⁾ 이후 내용은

적, 광덕을 대승적 수행방식으로 보는 맥락에서 나온 해석이다(김문태, 앞의 논문, p.304).

38) 이러한 차이를 ‘입장의 대승불교에 대한 태도 변화’로 보기도 한다. 그 근거로 김진옥은 소승불교에서 지켜야 할 250계 가운데 ‘不婬戒’가 있어 처를

다음과 같다.

遂留, 夜將宿欲通焉, 婦斬之曰, 師求淨土, 可謂求魚緣木. 莊驚怪問曰, 德既乃爾, 予又何妨. 婦曰, 夫子與我, 同居十餘載未嘗一夕同床而枕, 況觸汚乎. 但每夜端身正坐, 一聲念阿彌陀佛號, 或作十六觀, 觀既熟, 明月入戶, 時昇其光, 加趺於上. 竭誠若此, 雖欲勿西奚往. 夫適千里者, 一步可規. 今師之觀可云東矣, 西則未可知也. 39)

밤에 엄장이 광덕 처와 관계하려 하자, 광덕 처는 “스님이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 다.”40)라 하며 엄장을 크게 꾸짖는다. 이를 통해 우선 엄장과 광덕 처는 함께 지내자는 제안을 서로 달리 해석했다는 것을 알게 한다. 광덕 처는 엄장의 제안을 자비심, 측은지심의 발현으로서 엄장이 거두어주고자 하는 것이라 해석했고, 이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광덕 처는 광덕과도 함께 생활했으므로, 처의 입장에서 ‘엄장이 광덕과

움이 용납되지 않지만, 대승불교의 경우 보살의 娶妻가 인간 예의와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한 破契의 범위가 아니라 한 것을 언급했다(김진욱, 「광덕 엄장 인물유형 분석을 통한 원왕생가 화자 연구」, 『고시가연구』 제1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7, p.77).

- 39) 한글 해석은 다음과 같다(이민수 역, 『三國遺事』(을유문화사, 2013), pp.518~519). 밤에 자는데 관계하려 하자 부인은 이를 거절했다. “스님께서 서방정토를 구하는 것은 마치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엄장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 물었다. “광덕도 이미 그러했거니 나 또 한 어찌 안 디겠는가?” 부인이 말하였다. “남편은 나와 함께 십여 년을 같이 살았지만 일찍이 하룻밤도 자리를 함께하지 않았거늘, 더구나 어찌 몸을 더럽히겠습니까. 다만 밤마다 단정히 앉아서 한결같은 목소리로 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또 혹은 十六觀을 만들어 미혹을 깨치고 달관하여 밝은 달이 창에 비치면 때때로 그 빛에 올라 가부좌하였습니다. 정성을 기울임이 이와 같았으니 만약 서방정토로 가지 않으려 했다 해도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체로 천릿길을 가는 사람은 그 첫 걸음부터 알 수가 있는 것이니, 지금 스님이 하는 일은 동방으로 가는 것이지 서방으로 간다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 40) “師求淨土, 可謂求魚緣木.”

같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반면 업장은 불자가 아닌 일반인과 다름이 없는 부부 생활을 생각하며 광덕 처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오해의 기반에는 광덕과 광덕처의 부부 관계에서 기인한다. 광덕은 처와 살아도 육체적 관계를 가지지 않고, 오로지 불교도로서의 염불과 수행에 정진했다는 것이 광덕 처의 말에서 드러난다. 남편과 함께 십여 년을 같이 살았지만 일찍이 하룻밤도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으며, 다만 밤마다 단정히 앉아서 한결같은 목소리로 아미타불을 부르고, 십륙관을 만들어 수행하는 등 정성을 기울여 왔다는 것이다.⁴¹⁾ 어쩌면 광덕 또한 광덕 처를 애초에 자비심, 측은지심 발현의 일환으로서 분황사의 종이었던 광덕 처를 거두어 준 것일 가능성이 높다. 자비심의 실현으로서 普施行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⁴²⁾

작품의 문면에서 찾을 수 있는 광덕 처에 대한 단서는 ‘본래 분황사의 계집종으로서 대개 관음보살의 十九應身の 하나’⁴³⁾라는 것이다. 광덕 처의 실상은 보통의 인간이라기보다 광덕과 업장의 깨달음을 돕기 위해 화신한 관음보살인 것이다. 十九應身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관음보살의 19종의 모습을 뜻한다. 『三國遺事』에는 관음보살의 이러한 보통 사람으로의 화신을 형상화한 이야기가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광덕 처는 광덕과 업장의 보살행과 성불을 위한 조력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의 정체에 대해 광덕 처는 일절 말하지 않는다. 광덕 처의 정체에 대한 설명은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연에 의한 것이다.

업장은 이러한 광덕 처의 꾸밈음에 자신의 잘못을 단박에 크게 깨닫는다. 이후 부끄러워하며 원효에게 깨달음에 이르는 올바른 방식을 구하

41) “夫子與我，同居十餘載未嘗一夕同床而枕，況觸汚乎。但每夜端身正坐，一聲念阿彌陁佛號，或作十六觀，觀既熟，明月入戶，時昇其光，加趺於上。竭誠若此，雖欲勿西奚往。”

42) 김문태, 『『三國遺事』 소재 대비적 인물의 得道 양상』, 『고전문학연구』 제41권, 한국고전문학회, 2012, p.310.

43) “其婦乃芬皇寺之婢，盖十九應身之一德。”

고, 원효는 엄장에게 적합한 방식을 권하며 깨달음에 이르도록 돕게 된다.⁴⁴⁾

엄장의 이러한 깨달음을 이야기의 진행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 볼 수 있을까? 물론, 광덕이라는 바람직한 인물이 작품 초반에 등장한데다가, 광덕 처에 의해 그의 진면목이 더욱 밝혀졌기에 엄장의 부족한 모습은 광덕의 훌륭함을 더욱 부각시킨다. 그러나 엄장이 애욕에만 사로잡혀 관계하려 했다면, 광덕 처의 꾸짖음에 쉽게 그 마음을 돌렸다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 광덕 처는 남편도 없는 여성인데다가, 신분마저 천한 노비이다. 그럼에도 엄장이 그를 무시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기꺼이 애욕을 없애어 충고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엄장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단박에 누우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있었으며, 이는 본래 그 본성인 청정과 지혜에 가까웠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교에서는 無相을 강조하였으며 『金剛經』에서는 특히 네 가지 상인 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장이 충고를 받아들이는 모습은 이 중에서도 나라는 상인 我相과, 남이라고 생각하여 업신여기는 상인 人相이 없는 모습이다. 유학의 관점에서는 義의 발현으로서 자신의 과오를 부끄러워하는 羞惡之心과 智의 발현으로서 正道를 깨쳐 나아가는 是非之心의 모습에 가까워진 것이다. 엄장이 이렇듯 본성 회복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은 작품 초반에 소개되었다.

즉 엄장은 광덕 처의 말을 귀담아 들었기에, 스스로의 잘못됨을 부끄러워하며 원효에게로 찾아가 올바른 깨달음의 방법을 구하고자 하였다. 광덕이 자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행한데다가, 그 수행의 정도 또한 철

44) 이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莊愧赧而退，便詣元曉法師處，懇求津要，曉作鉢觀法誘之，藏於是潔已悔責，一意修觀，亦得西昇。鉢觀在曉師本傳與海東僧傳中。其婦乃芬皇寺之婢，蓋十九應身之一德。嘗有歌云，月下伊底亦，西方念丁去賜里遣。無量壽佛前乃，惱叱古音(鄉言云報言也)多可支白遣賜立，誓音深史隱尊衣希仰支，兩手集刀花乎白良願往生願往生，慕人有如白遣賜立阿邪，此身遣也置遣，四十八大願成遣賜去。”

저하고 단호했다는 것을 알게 된 업장은 자신이 해온 수행 방식의 잘못됨 또한 함께 깨달은 것이다. 따라서 업장은 광덕 처의 꾸밈음을 통해 愛慾에 눈먼 마음과 함께 자신의 잘못된 수행 방식까지 총 두 가지의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업장은 어리석고 욕망에 사로잡힌 인물로, 광덕과 그의 처는 지혜롭고 신성한 인물로 바라보기 쉽다. 그러나 실제 우리 삶에서 더 흔히 볼 수 있는 인물은 업장이다. 업장은 누구나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와 相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며,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깨닫고 그에 벗어나는 과정 또한 함께 보여주기ye 불교의 가르침인 ‘모두에게 부여받은 불성’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또한 모든 잘못은 감각적 욕구와 함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함께 보여준다. 이러한 본성을 깨닫는 것이 실로 정토에 가는 것이며, 결국은 내 안에 정토가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다.⁴⁵⁾

깨달음에 이르는 誓願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방식을 선택하여 정진할 수 있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회가 될 때에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자신이 무심코 범했던 잘못된 인식 또한 바로잡으면 결국 누구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우선적으로는 수행에 있어서 앎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잘못됨을 돌이켜 겸허히 깨닫고, 正道를 가고자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야말로 불교와 유학에서 주장하는 인간 본바탕에 대한 긍정적 믿음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설화의 문화적 맥락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45) 『妙法蓮華經』의 「方便品」에 따르면 정토, 서방, 극락은 실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들은 중생이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方便으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方便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實談은, 결국 그 극락이 내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김병권, 「郁面婢念佛西昇의 불교문화적 담론 연구」, 『퇴계학논총』 제34집(퇴계학부산연구원, 2019), pp.174-177).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광덕 업장의 이야기는 서방 정토로 갔다는 그들의 성취보다, 업장의 본성을 회복하는 과정 자체에 이야기가 전달하는 참 의미가 있는 것이다.

IV. 회복형 인물 설정의 의의와 방안

1. 교육적 의의

지금까지 광덕 엄장 설화를 통해 본성 회복형 인물이 중심이 된 서사를 문화적 맥락 읽기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올바르게 나아가는 인물의 이야기는 『三國遺事』에 매우 흔하다. 대표적인 것이 원효대사의 일화라 할 수 있다. 원효는 누구나 인정하는 불교계의 훌륭한 인물이지만, 그도 때로는 상에 대한 집착으로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를 저지른다.⁴⁶⁾ 그러나 과정이 서투르다고 해서 결과가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다. 원효와 같은 훌륭한 인물이건, 미천하고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건 간에 과오를 끊임없이 바로잡으려 하는 마음과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완성된 인격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이러한 본성 회복형 인물은 보여준다.

이러한 회복형 인물 설정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러한 ‘본성 회복형 인물’의 설정은 고전소설에서 더욱 다양한 인물 유형을 탐구할 수 있게 해 준다. 지금까지 우리 고전문학 속 인물들은 ‘평면적 인물 대 입체적 인물’⁴⁷⁾의 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늘 평면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우리 고전 서사 전체도 비교적 천편일률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적 맥락 읽기를 통해 ‘본성 회복형 인물’을 설정하고 이를 작품 속 주요인물에서 탐색해보는 것만으로도 서사는 훨씬 입체적으로 살아난다. 광덕 엄장 설화에서 광덕에 해석의 초점을 맞출 때, 엄장은 부수적 인물에 불과하게 된다. 그러나 엄장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

46) 『三國遺事』에는 총 10편의 원효대사 관련 이야기가 실려 있다. 한 예로 塔像篇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條에서 원효는 버를 베는 여인, 월수백을 세탁하는 여인의 형상으로 관음을 만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틀에 갇혀 관음의 현신을 알아보지 못한다.

47) E.M. Forster, 이성호 옮김, 『소설의 이해』(문예출판사, 1996), pp.76-87.

추면, 작품 길이에 관계없이 서사 전개 곡선의 움직임은 독자의 심미적 수용 측면과 이념적 수용 측면을 훨씬 다채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이때 독자가 받을 수 있는 감동과 깨달음의 편폭 또한 훨씬 커진다. 더불어 문학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인간 이해’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인물형 설정과 이를 중심으로 한 해석은 작품 주제를 새롭게 해석할 발판을 마련한다. 기존의 善人, 즉 주인공에 초점을 맞춘다면, ‘주인공과 같은 선한 삶을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로 작품 전체의 주제 해석 방향 또한 고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툰고, 때로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인물이라도 깨달음을 통해 변화한다면, 비록 주인공에 비해 그 성취의 정도가 모자라더라도 보통의 독자에게는 훨씬 더 의미 있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방적 교훈을 전달하기보다 공감과 위로를 전하면서, 독자의 삶에 직접 침투할 수 있는 주제가 도출될 것이다.

물론 애초에 작품을 창작한 작자가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면, 이러한 회복형 인물이 서사의 중심이자 주제의식 구현의 중심이라 주장하기 힘들다. 그러나 작품의 최종적 의미 해석은 독자에게 있고, 독자가 작품의 의미를 완성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 작가는 애초에 작품 전체의 의미를 통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 야우스는 문학작품의 역사적인 생명은 그 작품의 수신자의 능동적 참여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고 보았다.⁴⁸⁾ 그리고 작품에 최종적인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존재로서 독자의 위치를 재정립했다. 즉, 독자는 작품의 의미를 완성 짓는 제2의 창작자이며 작가보다 영향력이 큰 작품 의미의 결정권자로 본 것이다.⁴⁹⁾

48) “작가, 작품과 독자의 삼각형 안에서 이 마지막의 것, 즉 독자는 단순한 반응의 고리가 아니며, 수동적 부분이면서도 또한 역사 형성의 원동력이다 (H.R.Jauß, 장영태 역,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문학과지성사, 1983, p.177.)”

49) “독자의 중재를 통해서야 작품은, 단순한 받아들임에서 비판적 이해로, 수동적 수용에서 능동적 수용으로, 인정된 미학적 규범들로부터 새롭고도 이 규범들을 능가하는 생산에로의 대치가 이룩되는, 그러한 계속성의 저절로

시대를 초월한 고전의 의미는 더욱 그러한 측면, 즉 당대의 독자가 어떠한 면에 더욱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그것이야말로 한 작품이 시대를 초월한 고전이 될 수 있는 이유이다. 어쩌면 지금 고전문학을 접하는 독자들은 절대적 聖人に 가까운 주인공보다 회복형 인물의 서사를 더 갈구할지도 모른다. 독자의 기대와 요구를 바탕으로 회복형 인물에 작품 수용의 중점을 두게 되면 주제 또한 기존과 다른 방향으로 도출할 수 있다. 즉,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지만, 그것을 수정하여 새롭게 나아갈 가능성 또한 누구나 가진다는 것’이 회복형 인물 서사가 지향하는 주제이다. 이 과정에서 문학 작품을 통한 인간 본성의 발견에 이를 수 있다.

셋째로, 고전문학의 문화적 맥락 읽기를 통하여 시공을 초월한 인간 본성이 가진 가치를 발견하면서, 고전문학과 전통문화 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비록 시대 구분에 따라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시대를 초월하여 문학이 추구하는 보편 가치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이는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이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가능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탐색은 인간 존재를 성찰하게 하고, 과오를 바로잡아 인간 문화와 사회 전체를 더욱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 그러한 고민은 시대마다 치열하게 이루어져 왔고, 그 중심에서 문학의 창작과 수용 또한 이어져 왔다. 따라서 이러한 본성 회복 인물형을 중심으로 한 서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스스로를 가다듬고 지금 이 순간을 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할 것이며, 고전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성 교육적 의의를 논의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본성 회복형 인물 서사의 탐색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변환되는 경험 지평에로 들어서기 때문이다(H.R.Jauß, 위의 책, pp. 177-178).”

한다. 누구나 선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며, 선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그 개인이 가진 올바른 기준이 보편적인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거나, 본인이 이미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기에 바로잡기가 힘들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입장을 비롯한 ‘본성 회복형 인물’을 통해 누구든지 잘못된 삶의 방향의 수정과 본성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업장은 聖과 俗의 중간에서 聖을 지향하지만, 俗에 흔들리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올바르고 고매한 삶을 원하지만 때로는 욕구에 흔들리고 잘못된 믿음에 변민하는 평범한 인간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업장의 서사는 독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내면에 자리 잡은 스스로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돕는다.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사람은 대체로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신뢰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⁵⁰⁾ 타인을 인식하고 대하는 모습은 역으로 그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 주는 거울이 된다. 따라서 본성 회복형 인물 서사를 통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믿음을 회복하게끔 유도하면, 타인과의 관계 또한 원만해져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에 만만치 않은 위기와 과제를 가진 현대인들에게, ‘우리 자신과 인간 존재에 대한 탐색’은 절실하게 닦친 화두이다. 善인들이 남긴 고전문학에서 이러한 고민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것은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가르침이 될 것이다. 「廣德 嚴莊」條의 업장은 지금 이 시대에도 흔하며, 생생한 인물형이다. 고전문학과 그를

50)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관계가 뚜렷이 드러나 주목된다(조영훈·윤인에,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중학생들의 자아개념이 사회성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한국여성체육학회, 2020), pp.93-109).

배대한 사상을 통한 문화적 맥락 읽기는 현대의 독자들이 더욱 생생하게 작금의 여러 고민들과 대면하게 할 것이며, 그 해답 또한 모색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2. 실행 방안

본성 회복 인물형 서사는 才子佳人, 절대적 善人인 고전서사의 주인공 중심 해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서 여러 교육적 의의를 정리하였는데, 이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논의해 봄으로써 현실에서 본 논의가 힘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을 논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문학교육 과정에서 인성교육의 강조를 더욱 역점에 둘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고전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초·중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핵심 역량의 강조’를 들 수 있다. 이는 물론 외부로부터 촉발된 원인에 의해 국내의 교육과정이 영향을 받아 바뀌게 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의 도입에서 물론 많은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논의가 시작된 지도 이미 몇 년이 흘러 지금으로서는 도입된 교육 과정의 취지와 특성을 잘 살펴 이에 맞게 문학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향의 재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실상 이를 바탕으로 2019년에 제작된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살펴보면, 고전 문학 작품의 경우 이전 교육과정의 교과서 속 배치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른바 국문학사 교육 영역이라 할 수 있는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에 고전 문학 작품이 집중 배치되어 있다.⁵¹⁾ 이렇게 된다면 고전 문학 작품은 실상 현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 역량 함

51) 즐고,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고소설 이본 비교 교육 방안 연구 - 「남창춘향가」, 「열녀춘향수절가」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55집 1호(국어교육학회, 2020), p213-214.

양이나 인성교육의 강조에서 더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⁵²⁾ 따라서 본성 회복 인물형 서사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전 문학의 특정 영역에 편중된 배치를 탈피하여 다양한 핵심 역량과 연결된 문학의 단원에 고전이 집중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회복형 서사는 그 성격 자체로 국어과 6개 역량 중 ‘자기성찰·계발 역량,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대인관계 역량’ 등과 직결될 수 있다. 물론, 문화적 맥락 읽기와 접목될 경우 기존 국문학사 교육 영역과 관련된 역량인 ‘문화 향유 역량’과도 연결될 수 있다. 회복형 서사를 교과서에 수록할 때 고전 문학은 더욱 다양한 역량들과 연결되어 가르쳐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로, 문학의 구체적 교수·학습 측면에서 ‘회복형 서사’에 초점을 두어 지도할 수 있도록 수업 모형 개발, 수업 지도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고전 문학 작품에서 ‘인물형’에 대한 교육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고전 문학이 결국은 앞서 언급한 국문학사 교육 위주로 배치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고전 문학은 시대 상황등과 결부되어 가르쳐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혹은, 고전 문학 작품 속 인물은 대체로 ‘평면적, 전형적 인물’이 중심이라는 인식 때문에, 인물형을 가르치는 것은 자칫 고전 문학이 열등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엄장과 같은 인물은 고전 문학 작품에서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므로 교수자의 관점에 따라 인물형의 교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며, 이를 구체적 학습 모형으로 개발하여

52) 실제 이 영역은 국어과에서 강조한 6개 역량 중 ‘문화 향유 역량’과 밀접한 영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 고전 문학 작품이 대부분 편재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고전 문학이 미래 사회가 강조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동떨어져 있다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핵심 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다. 국어과는 총론의 6개 역량을 교과 특성에 맞게 ‘자기 성찰·계발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역량, 문화 향유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관계 역량’을 국어 교과의 핵심 역량으로 재설정하여 소개하고 있다(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교육부, 2015), pp.3-4).

고전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에게 널리 알리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문학 작품에서 회복형 서사와 관련된 작품을 더 많이 발굴하고, 이를 다양한 경우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문학 교육 뿐 아니라 문학 작품을 통한 치유 및 치료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0년대 초부터 학계에서 논의가 시작된 ‘문학치료’의 주된 개념은, 문학작품을 통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성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⁵³⁾ 독자, 혹은 환자는 그 누구나 자신의 서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상의 방향도 달라진다.⁵⁴⁾ 이때, 작품의 서사와 자기의 서사가 동떨어져 있다면 좀처럼 문학 작품을 통한 치유가 시도되기 힘들다. 독자는 대체로 주인공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다. 인물은 독자의 작품 감상에 있어 구심점이기 때문이다.⁵⁵⁾ 현대 독자들은 고전문학의 주인공인 절대적 善人보다는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성장하는 인물에게 훨씬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감상의 구심점이 되는 인물을 달리 설정하도록 유도하여 독자들이 감정을 쉽게 이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감상의 과정에서 독자들은 본성 회복형 인물과 함께 반성하고 성장하며, 치유 경험과 성취감을 얻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고전문학이 향유되던 시대에 비해, 더욱 복잡한 구조와 이해관계를 가진 현대사회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더욱 팽배하다. 뉴스와 신문 기사를 통해 보도되는 사건들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더욱 경계하게 하고, 서로로 인하여 삶을 더욱 각박하고 불안한 것으로 여기게 한다. 그렇기에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서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요하기 힘들다. 본성 회복형 인물을 통해 선과 악을 두루 구비한 인간의 모습과 그 가능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

53) 정운채, 「고전문학 교육과 문학치료」, 『국어교육』 113(한국어교육학회, 2004), p.113

54) 정운채, 위의 논문, p.115.

55) ‘인물’은 서사 문학에 있어 다양한 모티브들을 묶고 엮어매는 기법으로 존재하며, 주동인물은 독자에게 뚜렷한 공감 등의 감정을 가지게 한다(이대규, 「교과로서의 문학의 구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p.45).

하다. 그를 통해 우선 나 자신의 부족함과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나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타인과 사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옮겨 갈 것이다. 유학과 불교의 인간관과 더욱 강하게 결합된 고전문학을 통해 인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수업이 교실과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V. 맺음말

인공지능의 능력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기대감 보다는 걱정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미래가 인간의 무력함과 기계의 우위로 고정되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시점일수록 인간 존재의 존속 가치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발과 성장에 우위를 두었던 과거 속에서 인간답지 못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 고전문학과 그 속을 관류하는 전통 사상의 가르침은 인간이 타고난 본성을 발휘하며 인간답게 살아야만 자신도 공동체도 그 안녕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경고이자 깨달음을 준다.

「廣德 嚴莊」條는 부족한 인물이 스스로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훌륭한 성취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짧은 이야기 속에 큰 감동과 여운이 있다. 그러나 才子佳人, 절대적 善人으로서의 주인공만을 떠올린다면 본 이야기가 가진 감동의 편쪽은 적게 펼쳐질 것이다. 이에 본고는 우리의 전통 사상인 儒佛의 인간관으로서 문화적 맥락 읽기를 통해 해석의 초점을 마련하여, 이 이야기를 엄장 중심의 성장 서사로 볼 것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勸善懲惡, 善人과 惡人의 대결 등으로 단순하게 우리 문학을 바라본 것은 서양 문학이론의 영향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 고유의 시각으로 우리의 문학을 볼 때 작품 속 인물형도 더욱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살아날 것이다.

일상에서는 가까운 서로에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믿지 못할 일들에 인간 존재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때로는 여러 욕망과 갈등에 뒤얽혀 잘못된 판단을 하는 스스로에게 크게 실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자신에게,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기대와 가능성을 걸어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자신, 타인, 우리 사회를 아우르는 ‘인간’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다시금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지 되돌아보고 그 기대와 믿음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廣德嚴莊」條는 그러한 점에서 지금 이 시대에 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金剛般若波羅密經』 『大學』 『孟子』 『三國遺事』 『聖學十圖』

고운기, 『일연을 묻는다』(현암사, 2006).

고익진, 『불교의 체계적 이해』(광복, 2006).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교육부, 2015).

김기중, 「한국불교 문헌설화의 양상과 성격」, 『동악어문학』 67집(동악어문학회, 2016).

김문태, 「『三國遺事』 소재 대비적 인물의 득도(得道)양상」, 『고전문학연구』 제41권(한국고전문학회, 2012).

김병권, 『방각소설 장풍운전과 문화관습』(세종출판사, 2001).

김병권, 『고전문학 속의 문화 읽기』(부산대학교출판부, 2009).

김병권, 「郁面婢念佛西昇의 불교문화적 담론 연구」, 『퇴계학논총』 제34집(퇴계학부산연구원, 2019).

김진옥, 「광덕 엄장 인물유형 분석을 통한 원왕생가 화자 연구」, 『고시가연구』(한국고시가학회, 2007), 제19집.

류탁일, 『한국 고소설 비평자료 집성』(아세아문화사, 1994).

- 박노준, 「신라가요 산문기록에 나타난 선·악 두 세계」, 『민족문화연구』(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4), 8권.
- 박서연, 「신라 현신성불설화에 보이는 의상 화엄사상의 영향」, 『한국불교학』(한국불교학회, 2016), 제78집.
- 박용식, 「二人成佛譚의 발원과 성취구조」, 『국학연구논총』(택민국학연구원, 2009), 제4집.
- 박인희, 「『三國遺事』 도반설화의 확장파 변모」, 『어문연구』(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제37권 제2호.
- 설중환, 「광덕 업장설화 연구 : 「구운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우리어문학회, 1995), 9집.
- 안외순, 「한국정치사상의 원형탐구-『三國史記』와 『三國遺事』를 중심으로-」, 『온지논총』(온지학회, 2014), 제41집.
- 원순 역, 『육조스님 금강경』(법공양, 2013).
- 이대규, 「교과로서의 문학의 구조」(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이민수 역, 『三國遺事』(을유문화사, 2013).
- 이상성, 「한국고유사상과 유교의 습합-『三國遺事』와 『三國史記』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한국철학사연구회, 2020), 제64집.
- 이현주, 「『三國遺事』 고승수행담의 양상과 의미」, 『국학연구논총』(택민국학연구원, 2018), 제21집.
- 장순희, 「문화적 맥락 읽기를 통한 고전소설 교육방안 연구」(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13).
- 정보배, 「유불사상을 통한 「단군신화」 인물형의 해석과 문학교육적 의의 연구」, 『국어문학』(국어문학회, 2019), 제71집.
- 정보배, 「판소리계 소설의 군자 보살형 인물을 통한 조선 후기 소설 독자의 가치관 고찰」,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9), 제18권 제1호.
- 정보배,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고소설 이본 비교 교육 방안 연구 - 「남학춘향가」, 「열녀춘향수절가」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국어교육학회, 2020), 제55집 1호.
- 정운채, 「고전문학 교육과 문학치료」, 『국어교육』 113호(한국어교육학회,

2004).

정현옥, 『『三國遺事』 소재 「廣德 嚴莊」條의 기호학적 분석』, 『배달말』(배달말학회, 2003), 33.

정효운, 『『三國遺事』에 나타난 한국인의 사생관』, 『동아시아고대학』(동아시아고대학회, 2015), 제39집.

조영훈·윤인애,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중학생들의 자아개념이 사회성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한국여성체육학회, 2020).

주재우, 「인간담구로서의 고전문학 교육연구-二人成佛譚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9), 제23호.

채상식, 『『三國遺事』의 찬술기반』, 『한국사학사학보』(한국사학사학회, 2017), 제35호.

황병익, 「『三國遺事』 「廣德 嚴莊」條와 <願往生歌>의 의미 재고」, 『한국시가연구』(한국시가학회, 2017), 제43집.

Edward J. Shultz, 김범 역, 『무신과 문신』(글항아리, 2016).

E.M. Forster, 이성호 역, 『소설의 이해』(문예출판사, 1996).

H.R.Jauß, 장영태 역, 『도전으로서의 문학사』(문학과지성사, 1983).

Abstract

The Study on the Type of Person Restoring the Nature of Gwangdeok Umjang in the Samguk Yusa. / Jeong, Bo-bae

This study attempted to read the cultural context of Gwangdeok Umjang's tale of the Samguk Yusa. And as a type of character i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s a whole, we looked at the type of person who restores his natural nature as a human being. There is a strong perception that Korean classical figures are categorized into good and evil people. The reason is because of the widespread theme of classical literature: 'The good are blessed, the bad are punished.' However, Confucianism and Buddhist ideas, which have a deep connection with our classical literature, basically see humans as good in their innate nature. And it sees human nature as recoverable according to individual efforts.

Reading through cultural context is a way of interpreting literature through the culture and ideas that gave birth to literature. When attempting to read the cultural context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one can interpret the existing villain as a person who has restored his or her nature. And more diverse interpretations will be possible, away from the interpretation of existing main character-oriented literary works.

Gwangdeok Umjang's tale is especially about Umjang, which tells a short story about how an ordinary person obsessed with desire reaches enlightenment. This story focuses on the story of a person who recovers his or her nature and shows the process of restoring his nature. From this perspective, when interpreting various works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we will be able to derive more diverse meanings for literary works. And you will be able to obtain the various literary and educational significance and personality educational

significance that modern people need.

Key Words: A type of Person Restoring the Nature, Gwangdeok Umjang, Samguk Yusa(三國遺事), Confucian and Buddhist ideas, reading through cultural context.

